

# “폭우 피해 규모 다른데 모두 1천만원?”...복구 소상공인 ‘불만’

지난해 7월 1천550여명 비 피해 위로금 등 3개 항목 일괄 지급 ‘사실’ 고려...정도는 반영 안돼 전문가 “제도적 세밀기준 필요”

광주 복구가 지난해 ‘괴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동일하게 지급한 데 대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일괄 산정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구는 차등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복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20일 광주 지역에 500mm 넘게 쏟아진 ‘괴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순차적으로 각 1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재난지원금은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70%·시비 12%·구비 18%로 재원이 마련됐다. 지급된 세부 항목별 금액은 ▲재난지원금 300만원 ▲위로금 500만원 ▲재해구호 200만원이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약 1천570명이었고, 복구는 이 중 금융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1천550여명에게 3가지 세부 항목을 더해 총 1천만원

씩 지원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은 괴물 폭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서 제출했으나, 피해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복구의 설명이다. 즉, 피해를 입었다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지원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곳곳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비슷한 곳에 위치한 가게들이라도 배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 침수 정도와 영업 피해가 다른데 일괄 지급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누구는 1천만원이 사실 복구 비용으로도 모자란데, 별다른 피해 없

는 곳은 오히려 이익을 본 상황”이라며 “지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실제 피해 정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구는 행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지원 항목과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피해 규모나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복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지급 대상 여부와 제외 업종 등을 검토한 뒤 지원했다”며 “지자체가 임의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거나 차등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일정 금액

으로 일괄 지급되면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게는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부족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할 때 전체 피해자에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현철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동일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 집행은 쉽지만 피해 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와 매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찬용 기자



5년 만에 전면 개방된 운천저수지 16일 오전 광주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운천저수지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이 5년 만에 풀려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 운천저수지의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오는 27일이며 올해부터 운천저수지의 화려한 벚꽃을 볼 수 있게 됐다. /조영권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유해 방지 책임 규명 철저”

민주노동 등 249개 시민단체 성명 전면 재수색·범위 확대 등도 촉구

민주노동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방지 사태에 대한 전면 재수색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28일 잔해 보관 개선 작업 중 첫 유해가 발견된 후 3월 들어 수습점이 잇따라

발견됐다”며 “이미 정부가 ‘수습 완료’를 공언한 상태에서 현 상황은 당시 수색이 사실상 ‘중거 인멸’이자 ‘시신 유기’에 가까운 범죄적 행위였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차가운 활주로 철조망 안쪽에서 직접 가족의 뺨자국을 찾아내야 하는 비극은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형언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일대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 수색 ▲민간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

수습팀 투입 ▲수색 과정에 유가족 의견 적극 반영 및 매일의 계획과 경과 투명하게 설명 ▲유해 수습 실패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사법 수사 진행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요구했다. 단체는 “유해 수습은 단순히 유골을 찾는 일이 아닌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자 찢겨 나간 가족의 삶을 간신히 이어 붙이는 비통한 의례”라며 “1g의 유해라도 더 찾는 것은 희생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자 남겨진 이들이 고인을 온전히 배웅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후영 기자

## 광주회생법원, 법인 대상 첫 개시 결정

광주·전남 지역 업체 3곳 ‘속도감 있는 절차 노력’

이달 초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이 첫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 법인 3곳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결정은 회생 절차를 진행할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판단으로 관련 단계의 첫 번째 관문이다. 해당 법인 3곳은 각각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곳들로 모두 지난해 12월29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지법 파산1부는 지난 1월 대표자를 심문했고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광주회생법원이 이달 1일로 개원하면서 이번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이관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회생법원은 기존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하고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각 회사들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회생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시 결정과 함께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광양 제조업체서 46일 만에 근로자 또 숨져

40대 협력업체 직원 부상에 깔려

지난 1월 아른근 가스 질식으로 근로자가 숨졌던 광양 한 제조업체에서 46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광양시 광양읍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40대)씨가 선박 부품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이 업체에선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 부품을 옮기던 중이었는데, A씨는 난간과 이동하던

자재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월29일에도 아른근 가스에 질식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B(40대)씨가 사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유수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고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9명에 달한다”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조치와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